

인터뷰 경기도포천교육청 학무과장 임용담

학교별 優秀교육프로그램 일반화 운영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해 특기 조기 발굴

경기도포천교육청이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포천교육청 임용담 학무과장으로 부터 포천교육의 비전에 대해 들었다.



분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 이 육묘장의 직원에게는 사원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었다. 초등학교 학생을 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처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포천교육의 비전에 대해? 포천에도 글로벌 인재가 자라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세계화, 글로벌 인재를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의 자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된 후에는 학교와 교사와 학부모가 합심하여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은 그 프로그램에 충실해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최경주 폴프소수도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의해 발굴되어 집중적으로 노력한 결과 PGA에서 우승을 하는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다. 포천에도 그런 인재가 없으면 안 된다.

▶포천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 개선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수업기술을 교사들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수업 잘 하는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수업명인상을 제정해 우수 교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계는? 여주에서 근무할 당시 육묘장을 운영하

른 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북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보성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배부, 포천초등학교의 각 층별, 실별로 분전함을 제작해 필요 없는 전력 소모 방지, 포천여자중학교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시범학교 운영, 대경중학교의 실력 있는 학교교육을 위한 야간자율학교, 방생도서관, 포천중학교의 효행일기 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일반화해 나가고 있다. 또 포천여자중학교와 포천중학교의 과밀하급 해소방안으로 선단초등학교를 송우 학군으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생활지도 프로그램은? 포천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가와 학교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생지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포천중학교에서는 46명의 학생지원상담봉사단 운영해 생활지도에 나서고 있다. 포천초등학교의 경우, 퇴직경찰관을 학교에 초빙해 생활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고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교사가 솔선수범하면 학생들도 따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계는? 여주에서 근무할 당시 육묘장을 운영하

▶지역특성상 2년마다 바뀌는 교장 제도에 대해

안정적 학교교육 활동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 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평초등학교의 경우 전임교장의 탁월한 소규모 학교운영 성공사례를 이어 받아 후임 교장이 대단한 열정과 아이디어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관리자도 발령된 후 2년 동안은 매우 열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학교경영 모델은? 변화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예를 들어 박카스와 비타500을 비교해보면 박카스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데 비타 500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더욱 많이 팔리겠는가?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부딪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민족사관학교에서도 과외를 한다고 한다.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과외라도 해야 한다. 결국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개발이 선행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포천교육청의 역할은?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포천교육청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 경기도교육청 시책을 포천교육현장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교장과 신규교사 간담회 등을 개최해 학교에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학급이하, 이상 등 4개로 분류해 학교에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금을 받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특정 학교의 우수교육프로그램을 일반화하여 다

‘현대 중국여성의 지위와 역할’ 특강

대진대, 추칭린(初慶玲) 주한 중국대사 부인 초청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는 5월 30일 추칭린(初慶玲) 주한 중국대사 부인을 초청해 ‘현대 중국여성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도서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추 여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올해가 한중 수교 15주년이자 대진대학교 개교 1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대진대학교가 중국전문인재 배양 특성화대학이라는 점에서 학교를 방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추 여사는 과거에 비해 중국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지만 한편으로 부담도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 사회가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한중 교류의 문제와 화사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에게 한중 양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전문 인재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강을 마친 후에는 대진대학교 여교수와 다과회를 갖고, 한중간의 교류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추 여사는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

여성들의 지위, 집안에서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나도 커서 경찰 될래요”

포천署, 유치원생에 경찰서 개방행사

포천경찰서(서장 김중혜)는 6월 8일 관내 신북어린이집, 한태어린이집 원생에게 경찰서를 개방하여 경찰업무, 각종 장비소개, 활동사항을 견학시켜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찰서를 방문한 원생들은 4층 강당에서 교통안전교육 및 미아방지에방대책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시작으로 경찰장구류 견학

및 전·의경의 시범으로 집합장면을 구경한 후, 112신고센터로 이동하여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경찰차까지 출동하는지에 대해 견학한 후, 경찰서 전경에서 기념 촬영을 끝으로 견학행사를 마쳤다. 이번 견학서 견학을 통해 방문 지도교사는 “어린이들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경



찰의 친절하고 따뜻한 배려에 고마움을 표했고, 이에 담당직원은 “경찰서는 항상 개방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언제든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항수’를 읽고

1985년에 처음 발간되어 2007년에 베스트셀러가 된 추리소설, 나는 추리소설을 꽤 좋아해서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에 눈길이 갔다. 쓰레기더미 가득한 생선비린내가 나는 18세기 더러운 시대 영국에서 태어난 그루누이는 어린 약마라 불리울 정도로 냄새가 없었다. 사람이려면 누구 나 가지고 있을 사람들의 냄새를 그루누이는 갖질 않았던 것이다. 사물을 냄새로 기억하고 냄새로써 판단하는 그루누이는 잔인한 천재라 할 수 있었다. 버림받고 어머니도 죽은 채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고 냄새도 없었던 그루누이는 자신만의 항수를 만드려고 24명의 소녀들을 살인하고 마침내 최고의 항수를 만든 후 잡히

고 말했다. 여기서 시간의 흐름의 전개로 마치 내가 이 책을 넘길 때마다 18세기 영국의 냄새나는 썩어빠진 골목길에서 그루누이와 함께 선비린내가 나는 18세기 더러운 시대 영국에서 태어난 그루누이는 어린 약마라 불리울 정도로 냄새가 없었다. 사람이려면 누구 나 가지고 있을 사람들의 냄새를 그루누이는 갖질 않았던 것이다. 사물을 냄새로 기억하고 냄새로써 판단하는 그루누이는 잔인한 천재라 할 수 있었다. 버림받고 어머니도 죽은 채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고 냄새도 없었던 그루누이는 자신만의 항수를 만드려고 24명의 소녀들을 살인하고 마침내 최고의 항수를 만든 후 잡히

까지 못해 사람하나를 얻지 못해 살아갈 수 없다며, 그루누이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지 못했다.

그러하여 자신만의 냄새를 만들고 최고의 냄새를 창출했던 그루누이가 말해주고 싶었던 건 루미가 아니라 인간자체의 본질성이 아닌가 하는 나의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책 항수를 읽고 특별히 감동 받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항수’라는 책을 통해 더 많은 것에 끌고 있는 것 같다.

책에 대한 끝림이라든가 느낌, 그것으로 인해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



김연우 학생 명예기자 (동남중 3년)



다문화가정 전통문화교실

경기도포천교육청, 방과후학교 특화사업으로 운영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희길)은 6월2일부터 관내 40여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전통문화교실을 열고 있다. 2007학년도 방과후학교 특화사업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실은 오는 9월8일까지 진행되며 이야기 한국사, 한국어, 서예, 한지공예 등 7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지구촌으로 좁아되는 시기에 마음과 마음을 열고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천교육청 대강당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특강과 한옥마을 견학 등 다채롭고 알찬 내용도 포함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동화

옛날에 돈이 많지만 구두쇠로 이름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공부를 하지 못하여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자는 머슴을 둘이려 해도 품삯을 너무 적게 쳐주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서 좀처럼 일하겠다고 나서는 머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소년이 그 부자집 대문을 두드리고 머슴 살기를 청하였습니다. 소년은 집이 너무 가난하여 돈을 벌어 부모님을 공양하려는 효성이 지극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부자는 소년 이 어린지라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이라도 아직 어린데 어찌하여 머슴을 살겠다고 그러느냐?” 소년은 뚜렷뚜렷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집이 흉수를 만나 몸뚱 때내려고고 의지할 곳이 없어, 부모님과 저 세 식구가 굶어 집 살이를 삼 년 간만 하다가 다시 문져 살기로 하였습니다.” “허허, 고놈 맹랑한 놈이로구나!” 부자는 그 소년을 이리 저리 살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 머슴살이 품삯은 얼마를 받으려 하느냐?” 그 소년은 대답하였습니다. “에, 저는 아직 어리고 힘이 적으니 첫날은 공 한 개만 주시고 그 다음날부터 매일 두 배씩 쳐 주십시오.” 그 부자는 속으로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하루에 공 한 알을 주고, 매일 그 두 배씩 쳐주

콩 한 알

란 말이더냐?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들어와 일하여라.” 썸이 흐린 부자는 계산도 해 보지 아니하고 너무 기뻐하며 소년을 머슴으로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인이름! 저의 약조를 문서로 써 주십시오.” 소년 머슴은 부자에게서 문서로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약속 문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김 아무개는 박 아무개를 머슴으로 삼 년 간 채용하면서 그 품삯으로 첫날은 공 한 알을 주고, 날마다 그 두 배씩 쳐 줄 것을 약속한다. 모년 모월 모일, 김 아무개 날인> 소년 머슴은 그 문서를 자신만 아는 곳 땅 속에 깊이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며 살았고 그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삼 년이 되자 소년 머슴은 그 부자에게 그간의 품삯을 쳐 달라고 하였습니까. 부자는 찡찡한 얼굴로, “아 이놈아, 어린놈 데려다가 밤 먹여주면 됐지 무슨 품삯이 야?” 하며 처음에는 품삯을 주려 하지 않으면서, “이놈아 처음에 공 한 알을 주기로 하고 날마다 그 두 배씩 쳐 주기로 하였으니 그거짓 품삯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큰 소리를 쳤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서질 않습니다. “애, 네가 썸을 해 보거라.” 소년 머슴은 품을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면 1알, 이틀이면 2알, 사흘이면 8알, 나흘이면 16알,닷새면 32알, 열흘이면 1024알, 11일

이면 한 되, 12일이면 두 되, 13이면 4되, 15일면 1말 6되, 18일이면 한 가마니, 22일이면 16가마니.....”

품의 숫자는 금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그 부자의 전 재산을 다 주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소년 머슴은 그 부자가 품삯으로 약속한 품을 내놓지 않으려 하자 그를 원남에게 가서 처음에 약속하였던 문서를 보이고 심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을 원님은 부자가 자필로 쓰고 서명한 문서가 있는지라 약속대로 품삯을 모두 주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년 머슴은 그 부자의 재산을 모두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 자신이 일 한 만큼의 품삯만 받아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주 작은 콩 한 알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더 크게 잃습니다.

그 부자도 소년 머슴이 다녀간 이후로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다른 머슴에게 제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켰으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끝)

*이 동화는 경기도 포천시에 전 해오는 민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여도 배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라는 교훈을 일러줍니다. (글쓴이)



김순진 월간 스토리 문화발행인

함께 공부해요

朋友之交(붕우 지교) ㉕

(장유간의 질서를 밝힘)

孟子曰不狎長 하며 不狎貴 하며 不狎兄弟而友 나 友也者 는 友其德也 라 不可以狎也 니라. 맹자말 불협장 불협귀 불협형제우우야자 우기덕야 불가이유협야 狎 길(협)자신에게 날다른 점이 있는 것을 믿어서 남에게 내세우는 것.

맹자가 말하기를 “벗을 사귀 때에는 내 나이 많은 것을 내세우지 말며, 내 몸이 존귀한 것을 내세우지 말며, 내 형제 많은 것을 내세우지 말아야한다. 벗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덕성을 벗하는 것이다. 자신의 남다른 것을 믿어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였다.

“벗을 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도의적인 사람이다. 이 같은 정신적인 사귄데 우월감 같은 것이 개재되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우월감을 개재시킨다면 상대방이 벗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문의 : 011-354-6485 양주수 본지 지문위원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방문/출장 11. <공강 방문> : (3) * 3개 생산라인이 모두 가동중입니다 프워프로덕션라인스 아나우인홀아포웨이선 <Three production lines are now in full operation.> * 보기도 좋습니다. 역동적인 성장이군요 룩스굿 앤베어뤼다이니미그로인 <Looks good and very dynamic growing.> * 곧 생산을 더 늘릴 것입니다 유일스태팔 프로덕션 수문 <We'll step up production soon.> * 우리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와이아고케비 쿠파트너스 <We're going to be good partners.> *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홉소 <I hope so.> * 원료는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웨어리스 더로우매터리얼 쉐플라이어? <Where's the raw materials supplier?> * 약 70%는 중국서 들여 옵니다. 어바웃세븐티퍼센 후립취어나 <About 70% from China.>

문의 : 윤 중 성 (017-723-4977)coleyoon@nate.com